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23면	'30년 인재양성 귀감' 김제갑 전 동아서관 대표 대통령 표창	1
江原日報	21면	“농어업인수당 확대·도 농업예산 10% 확보 힘쓰겠다”	2
강원도민일보	22면	"강원농민 역량 모아 농업인 권익 향상 앞장"	2
강원도민일보	16면	고성 거진연승협회 정총	3
江原日報	10면	홍천제조혁신융합회 창립 기념식 성료	3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 향토공예관’ 처리 고심...“하반기 결정”	4
江原日報	온라인	춘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 2024 호반리그 개막	5
江原日報	21면	[동정] 문관현 도의원(태백)	5
강원도민일보	01면	강풍·건조특보 대형산불 악몽	6
江原日報	05면	산불위기경보에도… 불법 소각 ‘활활’	7
江原日報	05면	산불조심	7
강원도민일보	11면	'문화예술 강릉' 매력 칠하기 25억원 투입	8
강원도민일보	12면	동해시 전지훈련 유치 파격 인센티브	8
江原日報	12면	‘봄 성큼’ 강릉 관광객 인산인해	9
江原日報	14면	태백 폐갱도 활용 대체산업 본격화	9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봄철 산불 방심 말아야	1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의대 증원 수도권 배정 안 된다	11
江原日報	19면	[사설] 도내 中企 활성화 대책, 총선 공약에 반영돼야	12
江原日報	19면	[사설] 사교육비 또 역대 최대, ‘공교육 정상화’ 무색하다	13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8일 (월)

인물 23면

'30년 인재양성 귀감' 김제갑 전 동아서관 대표 대통령 표창

장학사업 사회발전 공로 인정

원주 학생에 자비로 학비 지원

재단 청산 후에도 정신 이어져

"지역서 받은 사랑 돌려드린 것"

원주지역 학생을 위해 장학사업을 펼쳐온 김제갑(84·사진 왼쪽 세번째) 전 원주 동아서관 대표가 최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수상 직후 아들인 김기홍(맨 왼쪽)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한 기념 사진.

30년간 지역 학생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을 기부해 온 김제갑(84) 전 원주 동아서관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근 "헌신적 봉사와 선행으로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며 김제갑 전 대표에게 표창을 전달했다.

원주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인 동아서관을 1964년 무렵부터 운영한 김제갑 대표는 1970년대부터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왔다. 형편이 어려운 집 막내아들로 태어나 자수성가한 김 대표는 서점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 기부 등을 시작했다. 이어 1994년부터 2023년까지 30여년간 지역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꾸준히 전달했다.

1990년대 후반 학비를 걱정하는 고교생 48명의 수업료를 개인적으로 후원해 오던 김 대표는 2001년 사비를 털어 재단법인 동아서관장학회를 설립했다. 이어 22년간 외부 후원 없이 운영했다. 이 기간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1150명, 규모는 6억 3000만원에 달한다.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등 2남 4녀 6남매를 키우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30년간 이어왔다.

최근 재단 운영이 어려워지고, 후임 운영자를 찾지 못하자 지난 해 재단 청산을 결정했지만 마지막까지도 나눔이었다. 장학재단이 가지고 있던 토지 매각 기금을 비롯해 장학사업을 정리하며 남은 재산을 전액 다시 지역으로 환원했다. 이렇게 1년 전인 지난해 3월 단일 전달식을 통해 나눈 장학금이 2억 8000만원이었다. 당시 원주지역 고등학생 560명에게 50만원씩 전달하는 것으로 마지막 장학금 전달을 마쳤다.

장학재단은 청산됐지만 '나눔'의 정신은 이어지고 있다.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환원 사업을 시작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아들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도 2012년 당선 이후 2018년까지 7년여간 의정비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부친의 뜻과 함께 했다.

김기홍 부의장은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삶은 큰 귀감이 됐다.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고 했다. 김제갑 대표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돌려드린 것 뿐인데 큰 상까지 받게 되어 감사하다"는 소감을 남겼다.

김여진 beatle@kado.net

江原日報
2024년 03월 18일 (월)
인물 21면

“농어업인수당 확대·도 농업예산 10% 확보 힘쓰겠다”

도농업인총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이재석 회장 “삶의 질 향상 노력”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총연합회는 지난 15일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회관에서 ‘제 2·3대 임원 이·취임식’을 갖고, 농업의 가치를 인정받는 농촌, 농업인이 행복하게 일하는 지역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3대 이재석 회장이 취임하고, 김형숙 제2대 회장이 이임했다. 이재석 신임 회장은 춘천고를 졸업한 뒤 강원자치도 내 영농 환경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온 농촌 지도자다.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 제2·3대 임원 이·취임식이 지난 15일 도농업인단체회관에서 열려 이재석 신임 회장, 김형숙 이임 회장을 비롯해 김진태 도지사, 허영 국회의원,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등이 축하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박승선기자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농업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국민의 생명산업”이라고 강조하고, “농어업인수당 확대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실천과 노력을 경주하고, 강원자치도 농업예산의 10% 확보를 위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진태 도지사는 “총연합회원단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도의 중요한 정책파트너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로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미래농업 인재육성, 농업·농촌 사회서비스 강화, 규제혁신 등으로 강원 농업·농촌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영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등도 참석해 농업의 미래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박서화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8일 (월)
인물 22면

“강원농민 역량 모아 농업인 권익 향상 앞장”

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
이재석 신임 회장 취임
“농업 미래성장산업 육성”

강원도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 제2·3대 임원 이·취임식이 최근 농업인단체회관에서 열려 제2대 김형숙 회장이 이임하고, 제3대 이재석 회장이 취임했다.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임상현 도농업기술원장, 김경록 농협강원본부장, 김안석 새농민중앙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석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년을 맞이하는 전환점의 시기에 총연합회장으로 재직하게 돼 남다른 감회를 느낀다”며 “농업인의 권익향상에 앞장서라는 강원농민의 준엄한 명령을 새기고 이 자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 제2·3대 임원 이·취임식이 최근 농업인단체회관에서 열려 제2대 김형숙 회장이 이임하고, 제3대 이재석 회장이 취임했다.

김형숙 회장은 이임사에서 “초대 집행부와 제2대 집행부에서 이루지 못한 미완의 과제는 오늘 새로 출범하는 제3대 집행부에서 완성시켜 줄 것으로 믿고, 마음 편하게 임기를 마친다”며 “총연합회장직은 끝났지만 이제는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총연합회발전을 위해 협력과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김진태 도지사는 제2대 김형숙 회장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제3대 이재석 신임회장에게 “총연합회원단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도의 중요한 정책파트너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로서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미래농업 인재육성, 농업·농촌 사회서비스 강화, 규제혁신 등으로 강원 농업·농촌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혁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8일 (월)
지역 16면

고성 거진연승협회 정총 고성거진연승협회(회장황광석)정기총회가최근고성군수협회에서함명준군수를비롯한김용복도의원,최영희 고성군수협장, 임영식 고성군연승연합회장 등이참석한가운데열렸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18일 (월)
지역 10면

◇(사)중소기업융합강원연합회 홍천제조혁신융합회(회장:박승용)는 지난 15일 홍천 K컨벤션웨딩홀에서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홍천제조혁신융합회 창립 기념식 성료

【홍천】홍천지역 제조기업들의 융합과 교류 확대를 위한 (사)중소기업융합강원연합회 홍천제조혁신융합회가 지난 15일 홍천 K컨벤션웨딩홀에서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상범 국회의원,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이영욱·홍성기 강원자치도의원, 최이경 군의회 부의장, 김광수·용준순·용준식·황경화 군의원, 모혜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장, 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 오인철 민주평통 홍천군협의회장, 전명준 홍천문화재단 이사장,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최상순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2024년 03월 15일 (금)

KBS 춘천

강원

‘강원도 향토공예관’ 처리 고심...“하반기 결정”

[앵커]

춘천 강남동에 있는 빨간색 벽돌건물, 혹시 아십니까?

바로 강원도향토공예관인데요.

내년이면 지은지 40년이 되는데 개발과 보존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활용 방안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빨간색 벽돌 외벽이 특징인 '강원도향토공예관'.

1985년에 공예품 전시와 판매를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설계자는 당대의 유명 건축가 고 김수근 씨.

춘천 어린이회관도 설계한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공예관을 보존하자고 주장합니다.

[박찬흥/강원도의원 : "건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로 보고 가치로 봤을 때, 후에는 그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만은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시대 흐름에 맞게 재개발해야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예관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방문객은 1,000명, 판매장 매출은 2,000만 원대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이 건물이 있는 동네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주변 경관도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낡고 오래된 공예관 건물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건물 주변은 주거단지와 상가시설이 밀집해있어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건물주인 강원도는 이 건물 처리 방안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종훈/강원도 기업지원과장 : "기능성과 경제성에 더해서,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논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 같고요."]

강원도는 앞으로 춘천시와 시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건물 처리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박상용 miso@kbs.co.kr

江原日報
2024년 03월 17일 (일)
정치

춘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 2024 호반리그 개막

춘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 주최 야구리그인 2024 호반리그의 개막식이 17일 춘천 고구마섬 제2야구장에서 육동한 춘천시장과 허영 국회의원, 김진호 춘천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이무철.양숙희.이승진 도의원, 조계현 한국야구위원회 전령강화위원장, 백운진 춘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 등 내외빈을 포함한 1,000여명의 동호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18일 (월)
인물동정 21면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정총

◇문관현도의원(태백)은 18일 오전 11시 태백시노인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2024년 정기총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8일 (월)

종합 01면

강풍·건조특보

선거 있는 짝수해 강원도 산불 발생 징크스

금주 실효습도 30% 미만
산지 태풍급 강풍 특보
산불위기경보 '주의' 상향
올해 총선 짝수해 더 긴장
도, 열화상 드론 산불감시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 특보가 이어지고 영동과 산간은 태풍급 강풍까지 불어 '선거 있는 짝수해 산불 징크스'가 올해도 재현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영서와 산지를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도내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다.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고 있지만 강원도는 특히 심각하다. 도의 경우 18일까지 주중 실효습도가 30%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마른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산림청은 최근 산불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 발령하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과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자 산불 위험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선거철 짝수해만 되면 '선거 있는 짝수해 산불 징크스'가 어김없이 맞아 떨어지면서 긴장감은 더 높아졌다. 게다가 현재 동해바다에는 풍랑 특보, 산지는 강풍 특보가 발효 중이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18일 오전까지 강원 산지는 바람이 태풍급 강풍으로 분류되는 순간풍속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20대 대선이 있던 2022년 3월 강릉·동해, 영월, 삼척에서 동시 다발적 대형 산불이 발생해 320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해 123.2ha를 불태웠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겨울인 2월에 삼척시 노곡면과 도계읍에서 산불이 발생, 사흘 동안 산림 117ha가 잿더미로 변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24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에서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90명이 투입돼 약 30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런 산불은 대부분 사람에 의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의 약 72%(256건)가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가운데 담뱃불, 화원 방치, 쓰레기 소각 순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강원도내 대형 산불(1998~2022년) 발생 31건 중 18건(58%)이 농산폐기물 소각이나 입산자의 실화 등 사람의 실수로 인한 부분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는 선거가 실시되는 짝수 해에 대형산불이 빈번했던 만큼,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방지를 위해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산불감시 CCTV와 첨단 드론, 열화상 드론으로 산불감시를 벌인다.

또 산불 초기 진압력을 높이고자 담수량 3000ℓ의 대형 헬기(카모프 KA-32A)를 올해부터 임차하기로 했다. 임차기간은 2~5월과 11~12월 사이로 2년간이다.

한편 강원도는 당분간 추운 아침 날씨를 보이겠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5~-1도, 산지 -8~-5도, 영동 -3~3도며 낮 최고기온은 영서 12~14도, 산지 7~9도, 영동 10~13도를 보이겠다. 신재훈 ericjh@kado.net

선거 짝수해 산불

- 1996년 15대 총선(4월 11일) ▸ 고성 죽왕리 산불
- 2000년 16대 총선(4월 13일) ▸ 동해안 산불
- 2004년 17대 총선(4월 15일) ▸ 속초 청대산·강릉 옥계면 산불
- 2006년 4회 지선(5월 31일) ▸ 강릉 죽헌·난곡 유천동 산불
- 2018년 7회 지선(6월 13일) ▸ 삼척 노곡면·도계읍 산불
- 2020년 21대 총선(4월 15일) ▸ 고성 산불
- 2022년 20대 대선(3월 9일) ▸ 삼척·강릉·동해 산불, 양구 산불

도내 기상특보 현황

특보	지역	발효 시각
강풍 주의보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17일 오전 2시
풍랑 주의보	-동해중부안쪽먼바다	17일 오후 1시
	-동해중부바깥먼바다	17일 오후 1시
	-동해중부앞바다	17일 오후 2시
한파 주의보	-태백,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평창평지, 정선평지, 횡성, 철원, 화천, 춘천, 양구평지, 인제평지	17일 오후 9시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건조 주의보	-영월, 평창평지, 정선평지, 횡성, 원주, 홍천평지, 춘천, 양구평지, 인제평지	17일 오전 10시
	-강릉시평지, 동해시평지, 삼척시평지, 속초시평지, 고성군평지, 양양군평지	

대형산불 악몽

江原日報
2024년 03월 18일 (월)
사회 05면

산불위기경보에도… 불법 소각 '활활'

대형 화재 우려 비상
농부산물 등 태우다 불 잇따라
도내 3년간 22건 산림 잿더미

강원지역에 산불위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대형 산불 징크스가 반복됐던 '선거 있는 짝수해' 또다시 실화로 인한 대형 산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5시7분께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들입재터널 인근 밭에서 농부산물 소각 중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밭 60㎡를 태우고 20여분만에 꺼졌다. 이에 앞서 오후 4시29분께 횡성군 공근면 신촌리에서도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과정에서 들불이 발생했다가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들판 50㎡가 불에 탔다.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에서도 오후 3시25분께 쓰레기 불법 소각 중 불길이 인근 산으로 옮겨 붙었다가 25분 만에 잡혔다. 이 화재로 산림 0.2㏊가 불에 탔다.

이처럼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초 원주시 흥업면에서 80대 B씨가 밭에서 생활쓰레기와 농부산물을 몰래 소각하다가 원주시청 단속반에 의해 적발되는 등 곳곳에서 생활쓰레기와 농부산물 소각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원자치도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쓰레기·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총 22건이다.

김근태 강원자치도소방본부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불법 소각 문제는 단속이 어렵고 산림과 인접한 농어촌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강원자치도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불법 소각 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준겸기자 lean@kwnews.co.kr

江原日報
2024년 03월 18일 (월)
사회 05면

산불조심 동해안에 강풍주의보와 함께 건조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돼 대형산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7일 강릉시 사천면에 산불조심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8일 (월)
지역 11면

'문화예술 강릉' 매력 칠하기 25억원 투입

시, 창작우수 예술인·단체 육성
전시·공연 등 5개 분야 지원
"예술인 유입·창작 기회 제공"

강릉시가 올해 총 25억원을 투입해 문화예술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해 문화예술단체 보조 지원사업에 전시, 공연 등 5개분야 총 44건에 20억 3000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강릉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지원사업에 총 5억 5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내 우수한 창작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예술인 및 단체를 육성·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추진의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시에서 직접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강릉문화재단 사업에 새롭게 추가해 다양하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청년예술인, 원로예술인 지원을 이어가고 지원가능한 청년예술인 나이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 변경해 더 많은 청년예술인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시민모니터링 평가제를 새롭게 도입해 보조사업마다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내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4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지역 예술인에게 폭넓은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력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인의 유입을 늘려 강릉만이 가진 창의적인 문화 매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제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8일 (월)
지역 12면

동해시 전지훈련 유치 파격 인센티브

오늘부터 시행 최대 400만원 지원
시설 사용료 면제 등 체류 혜택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감

매년 2000여명 이상의 전지훈련 선수단이 방문해 100억원대의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는 동해시가 개별 전지훈련선수단에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체류비 최대 400만원 지원 등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내걸고 선수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화제다. 17일 동해시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개별 전지훈련선수단을 연중 유치하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책을 마련, 18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2박 3일 이상 지역내에서 체류하는 전지훈련팀에는 시 소유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전지훈련선수단 환영 오·만찬(1회), 휴게용천막, 특산품 등이 제공된다.

특히 4박 이상 체류하는 전지훈련팀에는 기존 지원책과 함께 팀별 1인당 1일 1만원(한도액 1인당 10만원) 지원 기준에 따라 팀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동해시를 방문한 모든 전지훈련선수단에는 무릉별유천지·도째비골스카이밸리·무릉계곡·천곡동굴의 입장료와 주차료가 면제되고, 전지훈련선수단 중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해오름스포츠센터 수영장 이용료도 50% 감면된다.

다만 전지훈련 외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대회와 행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지만 대회기간을 제외한 후 일정 기간 이상을 체류하면서 훈련을 지속하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전지훈련선수단 인센티브 제도를 다방면으로 홍보해 연중 전지훈련선수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인수 jintru@kado.net

江原日報
2024년 03월 18일 (월)
지역 12면

'봄 성큼' 강릉 관광객 인산인해

동해안 기온 20도 웃돌며 수목원·해변 등 인파
경포벚꽃 등 축제 잇따라 펼쳐져 손님맞이 준비

【강릉】따뜻해진 날씨 속 주말 강릉지역 곳곳이 상춘객들로 붐볐다.

17일 강릉 대도호부관아는 봄 기운을 느끼기 위한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방문객들은 대도호부관아 일대에 만개한 매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주변을 산책하며 봄꽃 삼매경에 빠졌다.

최근 동해안지역의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강릉지역 곳곳에 봄꽃이 만개, 상춘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노란색 개나리가 활짝 핀 강릉 경포호수공원과 지난 1일 카페형 열대식물원을 새롭게 선보인 강릉 솔향수목원도 봄나들이객들로 북적였다.

경포해변과 안목 카페거리 등 해변가 역시 완연한 봄 날씨에 가벼운 옷차림을 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서종우(35·경기도 가평)씨는 "최근 날씨가 따뜻해져 봄을 즐기기 위해 강릉을 찾았다"며 "맛집과 관광지마다 사람들로 붐벼 봄이 온 것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강릉지역에서는 다채로운 봄 축제도 펼쳐진다.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는 교1동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2024 솔올블라썸 벚꽃축제'가 솔올택지에서 진행되며, 이어 강남동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강남동 새봄맞이 축제'가 29일부터 31일까지 남산공원에서 열린다.

또 강릉의 대표적인 봄 축제인 '2024 경포벚꽃축제'가 29일부터 4월3일까지 경포 호수일원에서 개최된다.

엄금문 관광과장은 "호수와 바다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강릉에서 봄을 맞아 다채로운 볼거리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호준·권태명기자

江原日報
2024년 03월 18일 (월)
지역 14면

태백 폐갱도 활용 대체산업 본격화

시, 스마트마이닝·무중력 체험 드롭타워 사업 추진
장성광업소 폐광 앞두고 박차… 현안위 "갱도 수몰 반대"

【태백】태백시가 6월 장성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폐갱도를 활용한 대체산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태백시는 장성광업소 폐갱도를 이용한 200억원 규모의 국토교통부 공모 스마트마이닝사업과 가상 우주공간을 체험하는 태백드롭타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마이닝은 지하 갱도에 있는 광물을 광부가 지표면 위에서 화면을 보며 조정해 캐는 방식의 산업이다. 시는 이 밖에 1,000m 수갱을 이용해 무중력을 체험하며 우주의학 등을 연구하는 태백드롭타워사업도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상호 시장은 "지난 70년간 태백시와 함께한 장성광업소 수천㎞의 지하갱도의 경우 폐광대체산업 및 문화관광사업의 훌륭한 자산"이라며 "우선 스마트마이닝사업과 태백드롭타워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 장성광업소 폐갱도를 활용한 대체산업 추진이 구체화되면서 경제성을 들어 폐갱도를 수장해 광해복구를 추진할 계획인 정부와의 힘겨루기도 본격화되고 있다.

(사)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 "갱내를 폐갱수로 채워 수장하는 방식의 장성광업소에 대한 광해복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갱도 수몰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와 건의문을 잇따라 발송했다.

김주영 현대위 위원장은 "장성광업소 지하 갱내 시설은 산업적·역사적·관광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다"며 "장성광업소 폐갱도에 대한 수장을 강행한다면 태백시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반드시 보존을 기초로 한 광해복구사업을 진행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김광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8일 (월)
사설/칼럼 19면

봄철 산불 방심 말아야

-잦은 눈·비에 걱정 덜어…건조기 강풍 대비를

이번 겨울 유독 많이 내린 눈과 비가 봄철 산불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째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큰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것과 달리, 올해 도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산불 진화에 진땀을 뺐던 강원도는, 올겨울 전국적으로 겨울 눈·비가 내려 걱정을 더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건조기를 대비해 예방과 소방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17일 원주·춘천 등 도내 9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3월 산불 경계근무 기간을 비교적 무사히 넘기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13일 횡성 야산에서 난 산불도 조기에 진화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겨울철 도내 눈과 비가 내린 날은 25.4일로, 강수량은 277㎜를 기록, 평년 강수량 87.6㎜보다 252.8%늘었습니다. 산불예방에 날씨 덕을 크게 보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297곳의 저수율도 평년 85.2%를 훌쩍 넘은 96.2%의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겨울이 끝나고 3월과 4월 대형 산불이 집중됐습니다. 최근 10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100ha 규모 대형 산불 14건 중 64%인 9건이 이 시기에 났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강원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28건으로, 2021년 12월~2022년 2월 당시 겨울철 내린 눈·비 횟수가 연평균 겨울철 강수일수 19.2일보다 크게 적은 11.8일로 '마른 겨울'이었던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겨울철 내린 눈과 비로 습기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곧 시작될 봄바람은 금방 산과 대지를 메마르게 합니다. 봄철 이동성 고기압에 의해 부는 양간지풍은 '화풍(火風)'으로 불릴 정도로 기세가 강합니다.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산야를 태울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비책은 사전에 발생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관리 기관과의 연락 체계를 강화해 예방과 조기 진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지역 6곳에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억 6000만원이 지원된 만큼, 더욱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8일 (월)
사설/칼럼 19면

의대 증원 수도권 배정 안 된다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입해야 지역·공공의료 취지 신뢰얻어

정부의 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예상보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불안감이 높습니다. 의료서비스는 인권의 기본인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전문분야로, 파업의 악영향에 대해선 일일이 사례를 들지 않아도 피부로 절감 중입니다. 강원을 비롯한 전국 보건소 공중보건의마저 정부 파견 지시에 의해 지역을 떠나면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의대별 증원 배정에서도 수도권에 400명 배정 방침이 알려져 씁쓸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의대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원배정심사위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배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대 증원 숫자가 전격적으로 발표됐기에 조기에 의대별 인원 배정을 매듭지어야 합니다. 다양한 총선 관련 사회적 의제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중요한 지점은 의대별 증원 배정이 정부 발표대로 붕괴되는 비수도권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부 예상대로 정원 2000명 중 80%인 1600명 정도만 비수도권에 배정하는 결과는 안됩니다. 최고의 의료수준을 보유한 지역에 20%를 배정해 늘리는 것은 정부의 증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 병원을 서울 초대형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장 강원도내 거점 국립대인 강원대병원이 서울의 빅5 병원과 동일한 수준이 되려면 대학측에서 신청한 91명 증원 전체가 결정된다고 해도 현 상황 해소가 쉽지 않습니다.

강원지역의 경우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통합으로 삼척캠퍼스 교육 특성화와 연계한 삼척 분원 신설을 비롯해 강릉, 원주, 속초, 영월 등지의 공공의료원 그리고 18개 시군 보건소 등 공공부문 연계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산적한 현안 해소를 위해 업무 확장성이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강원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충북과 제주 같은 미니 의대를 보유한 다른 지역을 비롯해 비수도권은 정도의 차이일 뿐 비슷합니다. 실상 수도권 의대에 증원할 여유가 없습니다. 수도권 배정은 정부의 증원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어서 정책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18일 (월)
사설/칼럼 19면

도내 中企 활성화 대책, 총선 공약에 반영돼야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국민의힘 강원도당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을 방문해 '제22대 총선 정책과제'(제22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를 전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도내 중소기업 현안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정 지원 확대,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 전환 지원, 인력난·고령화 해소를 위한 강원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9건을 제시하며 이를 양당이 총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 및 협업 활성화 등 5대 분야 290개 중소기업 정책과제도 강조했다. 지역의 중소기업이 처한 경제 현실은 실로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고물가에 더해 대내외 수요 감소까지 겹쳐 기업의 경영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입법 지원에 나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근원인 중소기업이 잘되는 경제구조, 688만 중소기업 성장 시대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다. 더 이상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탓이다. 양극화 해소, 노동 규제와 ESG 대응 등 현장 중소기업이 원하는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창업이 늘어나고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여야와 총선 후보들은 도내 중소기업계의 염원이 담긴 정책과제를 꼼꼼히 살펴보고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동안 도내 기업인들은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국회에 번번이 실망했다. 따라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4년 동안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방 분권 시대에 지역경제 살리기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중심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 부흥의 기반이자 중심인 도내 중소기업 활성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시점에서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것도 중소기업이다. 여야가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정책을 만들어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18일 (월)
사설/칼럼 19면

사교육비 또 역대 최대, '공교육 정상화' 무색하다

도내 학생 1인당 32만4,000원, 역대 최고치
수시로 바뀌는 교육과정, 입시제도가 원인
공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도내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는 31만6,000원, 중학교 34만3,000원, 고교 32만1,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사교육비는 2022년 29만6,000원에서 9.7%(2만8,000원) 늘어나며 전국 평균 5.8%를 크게 웃돌았다. 첫 지역 조사를 시작한 2019년 도내 1인당 사교육비가 22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10만원 이상 불어났다. 조사 대상에서 빠진 유아 및 대입 준비생 집단의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 사교육비 경감을 외쳤지만 물가상승률(3.7%)을 넘어선 증가라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전국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4.5% 증가한 27조1,000억원으로 파악됐다. 2021년(23조4,000억원), 2022년(26조원)에 이은 3년 연속 최고치다. 사교육비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는 수시로 바뀌는 교육과정과 입시제도가 꼽힌다. 1980년 이후 지금까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 과외 전면 금지를 비롯해 학교 보충수업 폐지, 보충수업 허용, 재학생의 학기 중 학원수강 허용 등 무수히 나온 사교육 억제 대책은 실효성이 없었고, 공교육은 서서히 무력화되어 왔다. 사교육 억제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오히려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은 폭증했던 것이다. 입시제도가 바뀔수록 더 호황을 누리는 것은 학원인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이는 학교보다 학원이 교육제도와 입시에 대한 적응력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교육비 부담이 심해지면 저소득 가구 학생들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교육기회 불평등이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교육비 경감은 우리 사회의 절실한 과제다. 가계 소비를 옥죄는 과도한 사교육비는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젊은 세대의 저출산과 중장년 세대의 노후 불안도 지나친 사교육비에 뿌리가 있다. 교육당국은 사교육비 절감을 교육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교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의지다. 사교육비 축소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선의 방도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날수록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0.65명이다.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있는 사교육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국가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